

## 보이지 않는 차이나 리스크와 중국시장 마케팅 방향

곽복선

경성대학교 중국대학 교수

- 보이는 리스크는 상수(常數)화하여 현지 기업의 경영시스템에 내재화되어야-
- 보이지 않는 리스크는 경쟁력 강화와 기업간 파트너링으로 대처해야-

### □ 차이나 리스크

-중국진출기업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업의 내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각양각색의 ‘차이나리스크’가 존재하며, 궁극적 목표인 중국시장 마케팅성공에 앞서 경영상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문제들임.

-중국진출기업에게 존재하는 리스크는 크게 보면 1)기업내부와 관련된 리스크, 2)기업외부에서 오는 즉, 중국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로 구분됨.

▪ **기업내부와 관련된 리스크:** ①인원관리와 리스크 (본사파견직원 및 현지 인원 관리 및 교육, 현지화), ②생산, 마케팅 관련 관리 리스크, ③기업내부 정보관리, 대내외 정보공유, 기업비밀 대외유출(기술유출 등)문제 등과 관련된 리스크, ④ 회계, 세무, 노무 관리 리스크 등

▪ **기업외부에서 오는 리스크:** ① 사회운영 프레임웍(framework)의 변화 즉, 중국의 각종 법 규정 변화와 법규적용의 문제(세무, 노무, 토지, 환경보호, 에너지 효율적 사용, 시장개방 등), ② 중국내 경영을 위한 (또는 마케팅에 필요한) 정확한 정보 및 데이터 입수의 어려움, ③ 제품과 서비스의 대외홍보(미디어, 언론, 인터넷 노출)에 따른 리스크 (높아진 중국소비자의 요구관련 리스크), ④ 중국의 지역별 마케팅환경 차이에 따른 리스크, ⑤우리나라와 다른 중국(기업)문화코드 차이에 따른 경영 리스크, ⑥중국의 거시경제정책변화(금리, 환율, 소비, 투자 등)에 따른 리스크 등<sup>1)</sup>

1) 일반적으로 중후진국의 경우 정치제도 불안정에 따른 정치리스크가 중요한 리스크변수가 되지만 중국의 경우는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치체제와 관련된 리스크는 고려치 않았음.

## □ 상수(常數)로 존재하는 차이나 리스크 → 기업경영 시스템에 내재화 필요

-중국진출기업의 현지경영에 있어 생산마케팅, 위안화환율, 노무, 세무, 토지, 환경 보호, 에너지의 절감 및 효율적 사용 등과 관련된 리스크는 변수(變數)라기보다는 상수(常數)에 해당되는 리스크이므로 기업경영 시스템에 대응책이 명확히 정립되어 문제 발생시 바로 대처하여야 함.

### ▪ 위안화 환율: 지속적 절상 예상되나 기업경영차원의 리스크는 낮은 편

-2013.10.21일 달러당 인민폐 환율이 6.1352 위안/\$을 기록하여 근년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연초대비 2.4% 평가절상 되었음.

-동 수치는 절상폭 1% 내외에서 움직였던 2012년에 비하면 큰 폭의 변화로 보이지만 2010년 4.5% 이상의 절상 움직임과 비교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상황임.

\*중국의 세계최고의 외환보유고, 매년 1,0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유입, 2,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흑자, 선진국의 특히 그동안 미국의 통화량확대 추세 등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위안화는 제자리 걸음 또는 실질적인 절하상태로 판단됨.

-경공업제품 비중이 적지 않은 수출구조와 중국이 안고 있는 4.5% 이상의 실업문제 등을 감안할 경우 위안화의 환율 안정화는 수출-고용을 아우르는 경제적이자 정치적으로 중요한 변수이며, 전일 환율의 상하 1%포인트만을 변동하도록 허용하고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는 기준환율 결정구조 상으로 볼 때 외환제도의 근본적인 변화(상해자유무역지대에 허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환율의 진정한 시장화)가 없는 한 기업경영차원에서의 위안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높지 않은 상황임.

### ▪ 세무, 노무, 토지관련 리스크: 사전 예방적 리스크로 분류 세심한 관리 필요

-지속적 재정적자와 세제개편에 따른 세무관리 강화와 새로운 세원개발의 필요성, 국민소득수준의 지속적 제고와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, 도시화 추진과 산업구조개선 및 발전정책의 적극적 추진에 따른 지속적 지역개발 등은 현지 진출기업에게 세무, 노무, 토지 등 기업경영의 핵심요소관리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. (기업관리면에서 관련 리스크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음.)

-2012년부터 시작된 중국정부의 영세사업자나 서비스부문 중사업체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(增值稅)로의 통합 움직임(현재 주요 지역에서 시범 실시)은 관련 부문 세수감소로 인해 중국재정당국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. 이러한 움

직임은 예외없이 세무당국으로 하여금 세원개발이나 엄격한 관리를 하도록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. 이에 따라 민영기업이나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가 예상되며, 특히 이전가격문제, 기업소득세, 개인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
-이외에도 환경보호,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사용 효율성 제고는 중국정부가 기업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들로 비용상의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사전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분야로 리스크의 현재화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분야임.

#### □ 중국의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급성장→중국기업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필요

-중국진출기업의 경영차원의 내외부적 리스크는 다종다양하지만 대부분의 리스크들은 기업의 역량으로 해소할 수 있는 또한, 사전에 예방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리스크임.

-그러나, 중국정부가 2005년부터 산업구조조정촉진 조치<sup>2)</sup>를 통해 거시적 미시적으로 산업전분야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이 가져오고 있는 우리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그 범위와 폭에 있어 우리기업의 중국시장마케팅에 있어 지속적이며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파악이 쉽지 않은 '보이지 않는 차이나리스크'로 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임.

-특히 중국정부는 각 지역별로 상당 규모의 산업클러스터(또는 산업기지)형성을 장려 또는 추진하고 있는데 일례로 푸젠성(福建省)의 경우 2006년부터 30여개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클러스터별로 한화 10조 - 20조원에 달하고 있음. 광둥성, 산둥성 등 주요 성들의 상황도 유사하며 각 지역별로 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켜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지역별 주요 기업(용두기업)과 자체 개발 설비나 기술의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.<sup>3)</sup>

-이러한 상황은 우리기업(진출기업 및 대중수출기업)의 지속적인 경쟁력강화나 규모의 확대가 없으면 향후 산업의 전분야에 걸쳐 중국시장공략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임.

-이와 관련 정부나 연구기관은 빠른 시일내 중국의 산업지도(클러스터분포 및 주요 기업현황, 협력가능분야 등) 작성과 관련 산업분야 우리기업간의 전략적 연합마케팅 촉진, 기술 및 품질제고 지원, 중국기업과의 파트너링을 위한 장(場) 마련, 필요한

2) '산업구조조정촉진잠정규정(促进产业结构调整暂行规定 2005.11.9)' 과 '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(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)'에 따라 산업부문별 후속 산업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 추진되고 있음.

3) 필자의 이슈분석 '중국 시장, 산업정책 흐름을 보아야 보인다'참조

경우 중국 주요 클러스터와의 산업협력 추진 등을 지원해야하며, 기업의 입장에서  
는 무엇보다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기업과 파트너링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확대  
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(작성자: 광복선 교수, 경성대학교 중국대학)

(자료: [www.gov.cn](http://www.gov.cn) 등 중국정부 부서 홈페이지 )